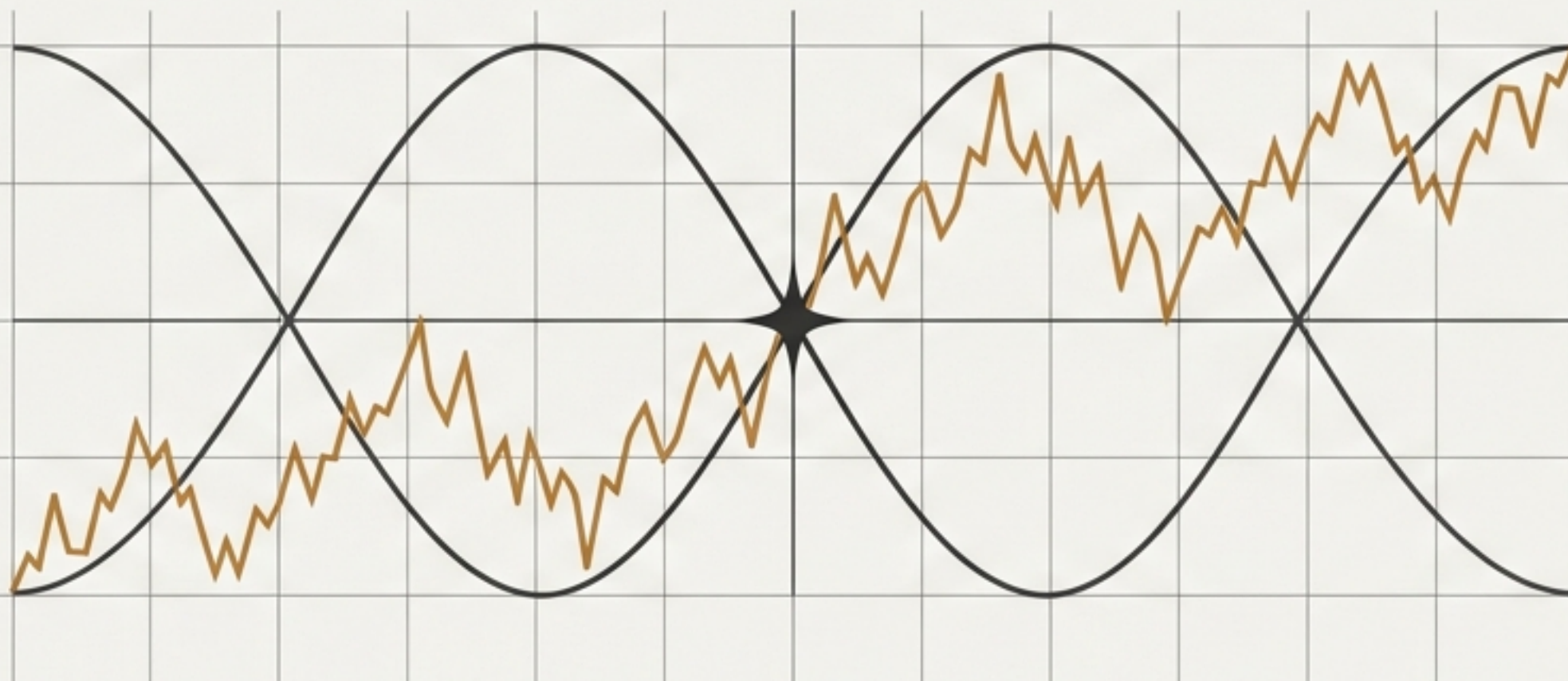


거시경제의 교차점: 지정학적 안도감과 인플레이션의 충돌

2026년 4월 10일 글로벌 시장 전략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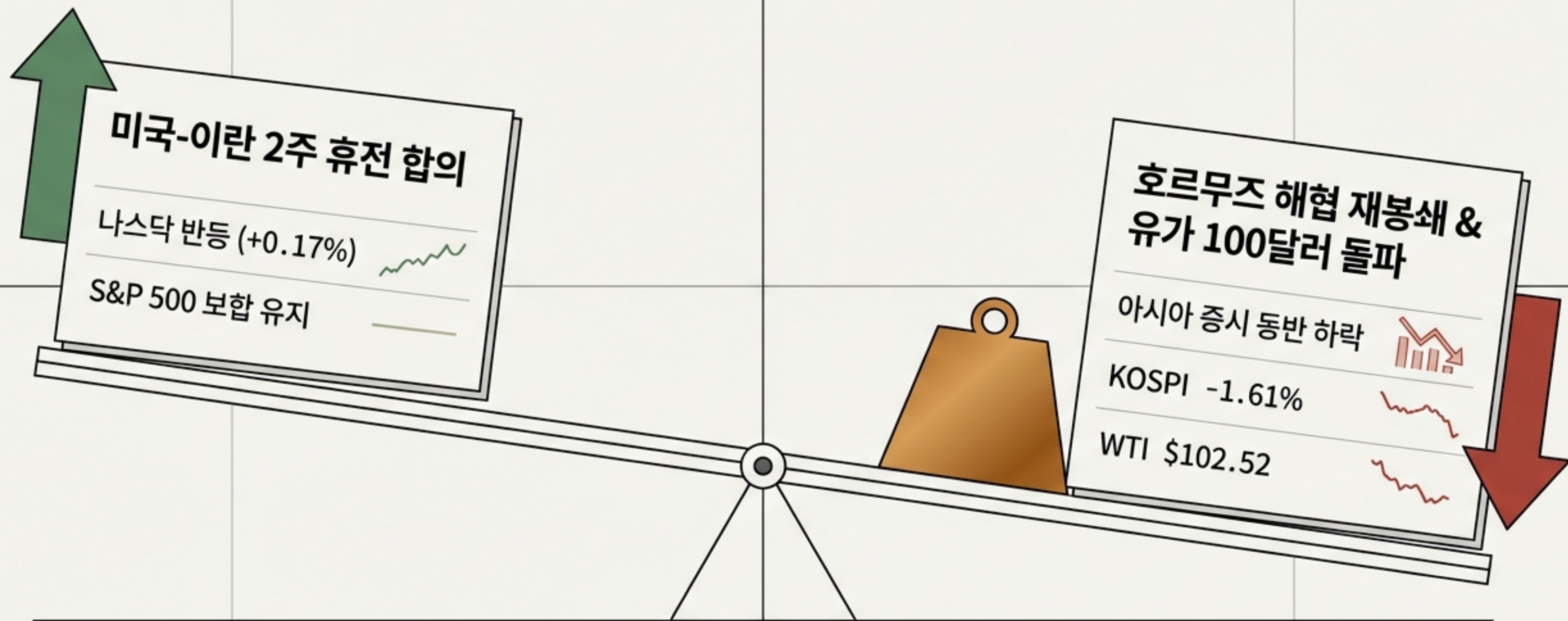


KOSPI: 5,778.01

WTI: \$102.52

US 10Y: 4.291%

시장은 단기 휴전의 안도감과 공급망 인플레이션의 공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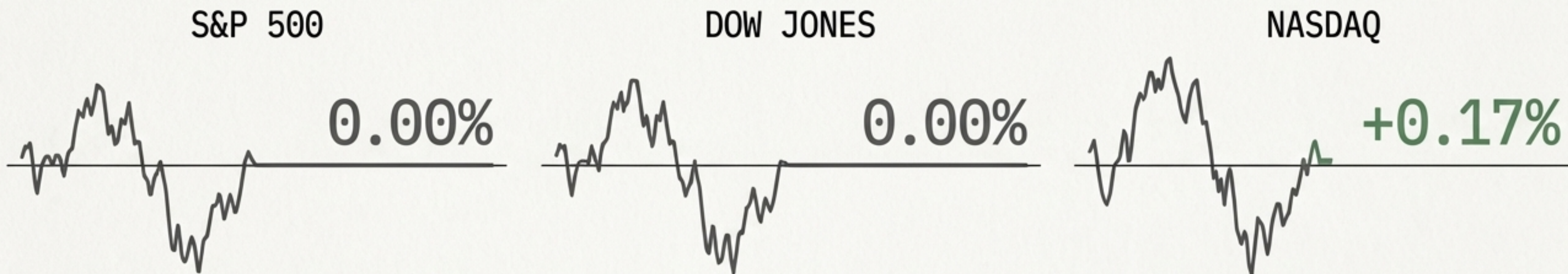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산별 극심한 차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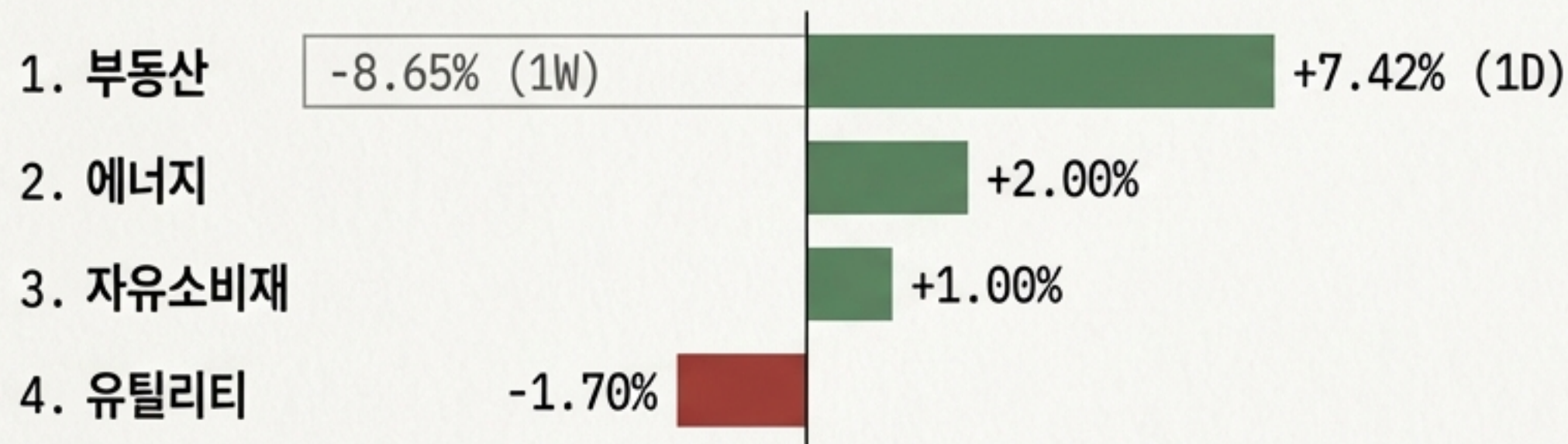
원자재 보유국과 미국 증시는 방어력을 입증한 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Global Divergence Matrix		
ZONE 1: 방어력 입증 (Resilient)	ZONE 2: 혼조세 (Mixed / Policy Driven)	ZONE 3: 취약 (Vulnerable)
미국 (S&P 500) 6,782.81 (+0.00%) ↑ 미국 (NASDAQ) 22,634.99 (+0.17%) ↑ 호주 (ASX 200) 8,555.00 (+0.52%) ↑ 자원주 중심 방어력 입증 중국 (상하이종합) 3,215.00 (+0.45%) ↑	유럽 (STOXX 50) 5,520.00 (+0.62%) ↑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 및 방산주 강세 유럽 (DAX / FTSE 100) (-0.28%) ↓	한국 (KOSPI) 5,778.01 (-1.61%) ↓ 일본 (닛케이 225) (-0.28%) ↓ 엔화 약세로 하락폭 일부 상쇄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나스닥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슷커버링에 힘입어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섹터별 양극화 심화



미시적 생존 전략 (나스닥)

상장 유지 목적의 대규모 주식 병합 단행

Tag 1: 707케이맨홀딩스 (20:1 병합)

Tag 2: Cenntro (60:1 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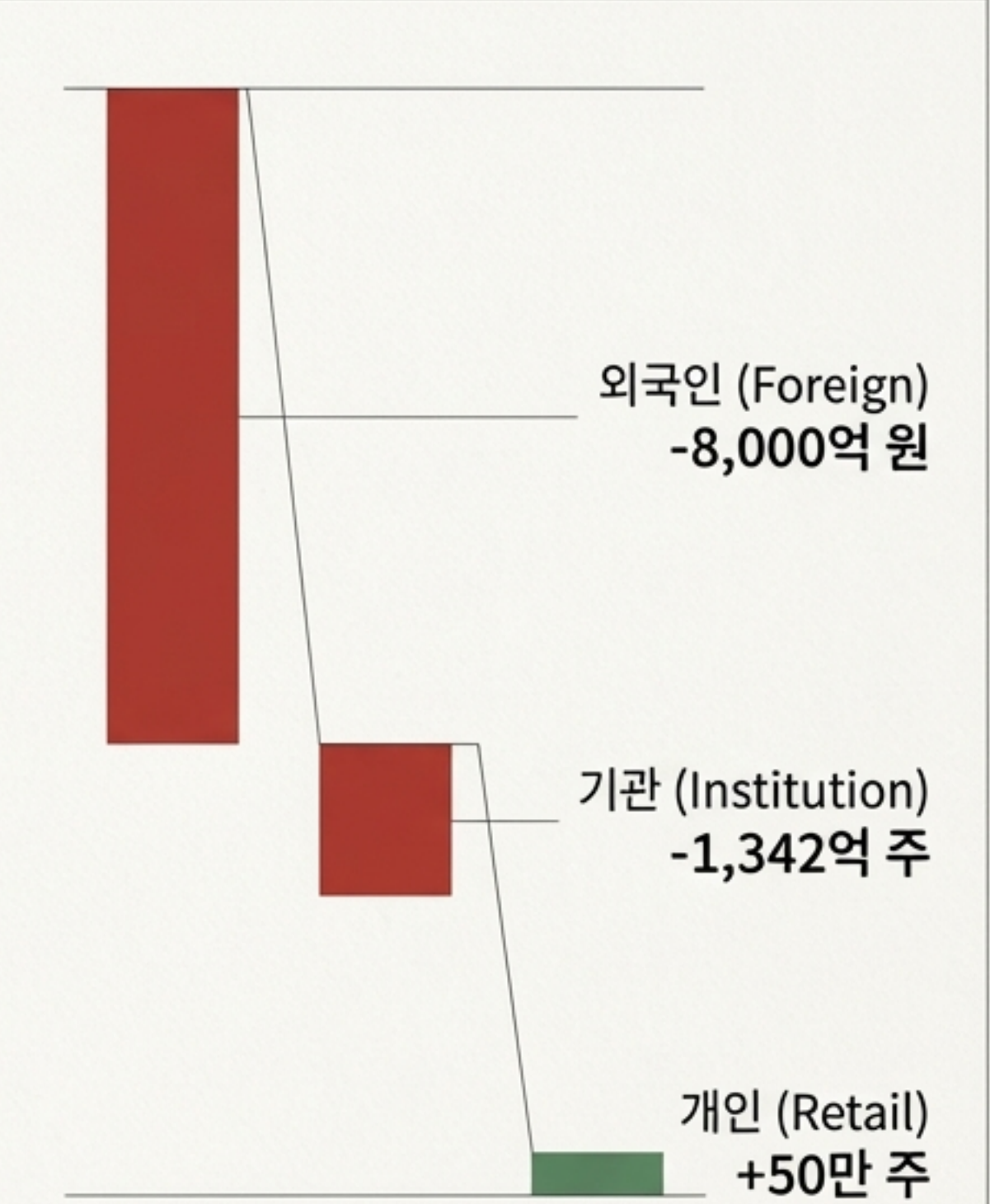
Insight Note 일시적 매도세 이후 휴전 합의가 하방 경직성을 제공했으나, 유틸리티 섹터 하락과 상장 유지 목적의 대규모 주식 병합은 시장 내재 리스크를 암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공포가 외국인의 1조 원대 순매도를 촉발하며 코스피 5,8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지선 붕괴 (KOSPI Support Breakdown)



투자자별 수급 등향 (Investor Capital Flow Trend)



배터리와 필수소재 섹터가 인플레이션 헤지 역할을 수행한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는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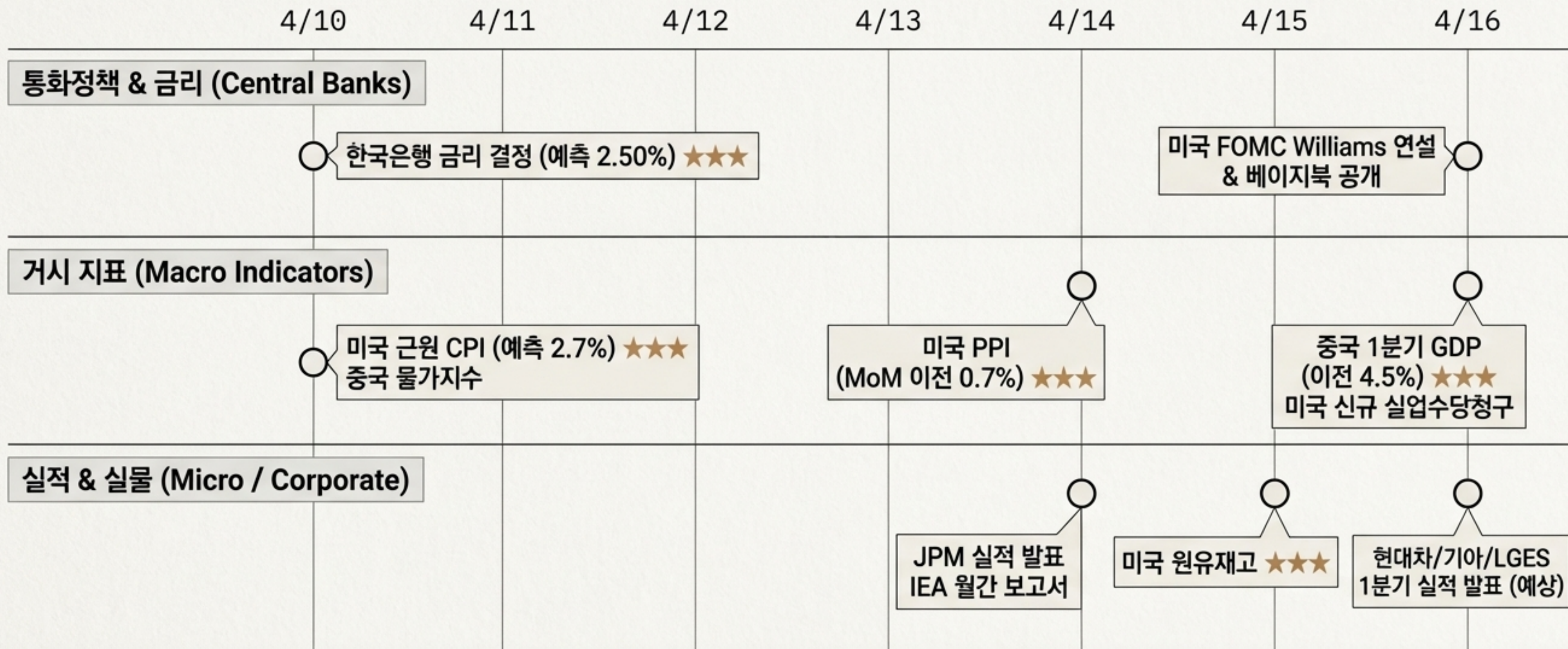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양극화			
상승 주도		하락 주도	
LG에너지솔루션	+3.69%	기아	-5.46%
LG화학	+3.05%	현대차	-3.64%
POSCO홀딩스	+1.24%	SK하이닉스	-3.39%
		삼성전자	-3.09%

채권, 원자재, 암호화폐 시장은 일제히 ‘안전자산 선호’와 ‘인플레이션 장기화’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습니다.

Cross-Asset Signal Matrix			
자산 (Asset)	현재가 (Price)	등락 (Change)	거시적 동인 (Macro Driver)
WTI 원유	\$102.52	+\$2.62 (상승)	호르무즈 재봉쇄 & OPEC 감산 기대 (정부 3차 석유 최고가 동결 조치 발동)
금 (XAU)	\$103,000	+\$18 (상승)	중동 리스크발 안전자산 선호 지속
비트코인	\$103,000	+\$1,240 (상승)	ETF 순유입 지속 및 디지털 안전자산 동조화
미 국채 10Y	4.291%	+5bp (상승)	FOMC 매파적 기조 지속 및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원/달러	₩1,445.00	-5.30 (하락)	유로화 강세(EUR/USD 1.1790)에 따른 제한적 달러 약세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 미국의 핵심 물가지수(CPI/PPI) 발표에 의해 판가름 날 것입니다.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및 안전자산 비중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 수혜 섹터로의 압축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기 방향성 트리거

한국 소비자물가 초과 여부 및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확인
전까지 관망세 유지



에너지 & 인프라 (선택적 편입)

유가 100달러 돌파 및
화학/에너지 섹터의
인플레이션 방어력 활용



금 & 채권 (비중 유지)

지정학적 불안과 연준 정책
스탠스 변화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안전판 확보